

보도자료(2018.10.04)

(문의 : 전략기획팀 이선 대리 041-550-7742)

## SK 바이오랜드, IFSCC(국제화장품학회)에서 신규 기능성 천연소재 발표

국내 기능성 천연소재 선도 기업인 SK 바이오랜드가 9월 18일부터 나흘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FSCC(국제화장품화학자협회)에서 신규 기능성 천연소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IFSCC에서 SK바이오랜드 연구개발 담당자가 구두발표하고 있다.)

IFSCC는 전세계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학회로 세계 화장품 학회라고도 불리고 있다. 195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설립된 이후 매년 열렸으며 한국에선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에 독일에서 개최된 IFSCC에선 "미용과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화장품 과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전세계에서 600편의 발표자료를 제출했고, 그 중 85편만이 발표 기회를 얻었다. 한국에선 SK 바이오랜드 등 3곳만 발표했다.



SK 바이오랜드는 이번 IFSCC에서 두충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신규소재의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SK 바이오랜드에서 개발한 신규소재는 적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에 쿨링(Cooling) 효과를 주고 피부 노화를 막는 기능을 한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 SK 바이오랜드의 신규소재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 SK 바이오랜드는 천마 추출물의 피부톤 개선 효과, 3세대 마스크팩 시트 소재인 바이오셀룰로스로 만든 겔(Gel)의 피부 진정 및 보호 효과도 소개하는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렸다.

SK 바이오랜드 관계자는 "SK 바이오랜드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천연소재와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전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국산 기능성 천연소재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K바이오랜드는 수천 종의 천연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능성 천연소재를 연구개발하는 바이오헬스케어(Bio-HealthCare) 전문 기업이다. 천안, 오송, 오창, 안산, 제주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소재 및 원료의약품 그리고 3세대 바이오셀룰로스(Bio-Cellulose) 마스크팩을 생산하고 있다.